



목포의 노래
150x100cm, 2011



이지호

목포대학교 미술학사
홍익대/조선대 미술학석·박사
개인전
서울 라메르갤러리 기획초대전 외(1998 ~ 2011) 23회
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외 20회
단체전
서울 갤러리 바이올렛 특별기획전(2011) 외 150여회
한국미협 제1분과 위원.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2012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임진년 새해를 맞아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는
2012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일시: 2012년 1월 27일 (금)
정기총회 - 오후 6시 30분
회장 이·취임식 - 오후 7시
*장소: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 8층 대연회장

이임회장 22대 회장 정영덕 (지역/82)
취임회장 23대 회장 유진하 (무역/79)



목포대학교총동문회
MOKPO NATIONAL UNIVERSITY A GENERAL ALUMNI ASSOCIATION
문의 _ 061)284-5064



신년사



의과대학 유치에 더욱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목포대학교 총장
고석규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목포대학교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모교에 보내주신 깊은 사랑과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포대학교 동문여러분!
그간 우리 목포대학교는 전남을 선도하는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 해 약학대학 신설에 이어 남악에 평생교육원 시설 등을 이전하기 위한 제3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한 11개 “잘 가르치는 대학(ACE)”에 포함되었고,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 대학의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켰으며,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직원들은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외형적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알찬 교육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로,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건너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과대학 유치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전라남도 도민의 염원이자 우리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과대학 유치에 더욱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목포대학교 동문 여러분!
새해에는 총선, 대선 등이 기다리고 있어 정치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한해가 될 것 같고, 북한의 정치적 상황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오히려 대학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혼돈 속에 이슈를 선점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함께 손잡고 전진합시다.

2012년 흑룡의 해, 목포대학교 동문 여러분 모두가 용의 기상을 품고 승천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장
정영덕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기쁨을 맛보는 한해가 되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어둠을 가르며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합니다. 龍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며,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용중에서 흑룡의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길한 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룡에 해를 맞이하여 목포대학교와 총동문회가 비상하는 최고의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포대학교의 중대과업인 의과대학의 유치와 총동문회의 장학재단 설립 등 중요한 일들이 해결되는 가장 멋진 임진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문 모두에게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엔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리는 최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문 모두 서로를 위해 주고 축하해주는 ‘송무백열’(松茂柏悅)의 참 기쁨을 맛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12년은 국운을 달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중요한 해에 목포대학교 동문들이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문 모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엄청난 괴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국운의 모든 것은 승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목포대학교에서 부터 시작 된다는 신념으로,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올 한해도 힘차고 당당하게 시작하는 목포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무안동문회 회장
박진우

임진년 흑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목포대학교 동문선호배님들께 지면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2012년 한 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 연초부터 ‘미래·희망’이란 단어를 꺼내기가 무색하게 만드는 뉴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소 값 폭락으로 키우던 소를 굶어 죽어가는 가슴 아픈 사연들과 부정과 부패의 고리로 얼룩진 정치권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합니다.

2012년 올해는 큰 변화가 기대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까지 올 선거에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1%를 위한 선택보다 99%를 위한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상위 1%를 위한 정책으로 인해 99%서민이 눈물 흘리는 사회는 공정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목포대학교 동문여러분! 우리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모범적 시민으로 또한 모교를 향한 동문님의 열정과 참여가 중요한 2012년입니다.

저도 재무 목포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목포대학교 동문여러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지털 인쇄/출판
POD(주문형 인쇄) 서비스

주 | **사람과 사람들**

Webhard ID : saram3372 PW : 3372

소량책 / 책자표지 / 브로슈어 / 카달로그 / 리플렛 / 팜플렛 / 포토북
포토앨범 / 신문 / CI / BI / 교지 / 문집 / 보고서 / 포스터 / 홍보물
옥외광고 / 실사출력 / 현수막 / 조형물 / 판촉물 / 전시홍보

목포시 용해동 114-38 T. 061-274-3372 F. 061-274-3375

송년의 밤 및 장학금 전달식



정영덕 회장님 인사



장학금 수혜자들과 함께

총동문회 송년의 밤 및 장학금 전달식 송구영신의 밤을 뜨겁게 수놓다

목포대학교총동문회(회장 정영덕)는 지난 12월 26일 스타마리너호 유람선 선상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으며, 모교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모교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1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영덕 총동문회장은 "앞으로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 설립을 이루어 내어 장학 기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문과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고석규 총장과 모교 교수, 동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의과대학 유치 등 각자의 소원을 기원하는 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풍등에 새해 소망을 담아...

장학생 명단

- 김경미(경제학과 4) 이유라(도시및 지역개발학과 3)
- 최인원(의류학과 3) 고은선(수학교육학과 3)
- 고우담(행정학과 3) 윤선미(미술학과 3)
- 서혜선(생명과학과 3) 박은정(지적학과 2)
- 송현승(식품영양학과 1) 임우택(정보전자공학과 1)



"총동문회를 위하여!"



차기 회장님 가족



고석규 총장님의 말씀



수염각으면 장가갈 수 있어!



즐거운 한때



김창훈 사업국장님 가족과 함께 노래를



난타공연 중인 미녀삼총사



잘한다~!



다함께 아리랑을 흥겹게...



번성하라 총동문회! 맛있게 식사 중



동문들과 함께



이지호 부회장님의 그림 전달



아빠와 함께 찰칵~!

임진년을 맞이하는 동문들의 다짐

- 1. 임진년의 새해의 다짐
- 2. 개인적인 소망
- 3. 총동문회에 바란다



1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남부럽지 않는 전남 거점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빨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과 목포시 그리고 목포대학교와 우리 동문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동문 여러분들 올해 아름다운 날들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
첫 번째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이고 두 번째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올바른 홍보 전략을 세워 목포대학교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임신 출산 하는 일입니다. 꼭 공주님을 만들고 싶습니다.

3
모든 동문들이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같이 노력한다면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대 동문들은 매년 늘어나지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 동문회에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졸업생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총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영호(미술95)

모든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여 마음을 붙잡는 대통령을 만들어 주소서...

우리 목포대 모두 사랑해~~

목포대학교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의과대학 유치기원!!

1
지난 2011년은 개인적으로 변화가 많은 해였다. 그리하여 올해는 그 변화를 나의 의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언제나 처음처럼...후회 없는 삶을 살자.

2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일... 이 모든 것을 사랑하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냄새가 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3
선배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총동문회가 이렇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단계 도약해야할 시기일 것이다. 그 기본에는 소통이 중요하리라. 동문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조직이 가장 힘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총동문회가 됐으면 한다.

조용준(국문91)

1
임진년 새해에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자기개발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용의 기운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고 뜻하는 일 모두 잘되었으면 합니다.

2
다이어트해서 S라인 만들기ㅋㅋㅋ, 연애하기 올해는 꼭 연애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청년은 연락주세요~

3
총동문회도 목대인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즐거운 동문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포대학교에도 의과대 유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임미선(식공06)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맘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 올 한해도 파이팅~~!!!^^

이현승(무역92)

1
임진년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다짐하여본다. "하면된다. 될 때까지 하다. 그러면 100%성공한 인생이다."

2
올해는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길.. 작년보다 더 많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금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다른사람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지...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더 느리게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믿으면서 앞으로 전진하자.

3
아직은 동문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동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소통이 부족한것 같다. 그래서 많은 각양 각색의 색을 띄는 사람들의 동문들을 이사로 위촉하여 폭이 넓은 동문회가 되어 목포지역 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는 동문회가 되길 바란다.

정승환(조경89)

1
새해가 밝았다고 우리주변에 크게 변화되는것은 특별히 찾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새해의 소원을 빌곤 한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우리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잎 클로버를 짓밟았고 관심한중 주지않고 스쳐 보내버렸다.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행운을 찾기위해 비록 볼품없지만 늘 우리 곁에 있었던 행복을 무시하고 그냥 보내 버린 것이다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 멀리 있고 뜬구름같은 행운을 바라기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느낄수 있는 행복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에 충실하자

2
2012년 새로운 직책,그것도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마음가짐이며 사람과의 관계맺기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진솔한 충고와 격려,그리고 도움을 받으려 한다.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에 적응하여 올 한해 최대담당인 장학재단설립에 매진해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싶다

3
어떤 단체라도 소속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잘 되고 못 됨이 결정된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개인개인에게 직접 이익을 주지는 못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그리하면 후에 총동문회의 위상이 사회전반에서 상승하고 그로인해 낙수효과가 전체 동문에게 미칠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더많은 동문의 관심과 참여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바란다

박권철(무역89)



인터뷰 - 신임 총동문회장을 만나다

활기찬 동문회를 목표로...

이사들의 수를 늘리고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할 것

목포대학교총동문회 편집국에서는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23대 동문회장으로 추천되신 유진하(무역79)동문을 만났습니다. 많이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유진하 신임 총동문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내용은 지면상 크게 여섯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Q. 먼저 축하드리며, 2년간 총동문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개교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 출범한 총동문회는 동문회의 핵심인 이사들과 재경동문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기찬 동문회, 지역사회 발전과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만 6천여명의 동문들을 대표할 총동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문회의 핵심인 이사들의 수를 천여명으로 늘리고 재경 동문회 회원을 10배정도 늘려 안정적인 총동문회로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또한 총동문회에 대한 자긍심과 회원들간의 연대와 교류를 위해 직장별, 직업별로 다양한 정보교환과 소모임을 활성화 하여 재미있고 활기찬 동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과 의과대 유치를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Q. 장학재단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 3억원의 재정보확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학재단의 신임 이사들의 영입 등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한 연합동문회, 재경동문회, 재광동문회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장학재단의 운영에 온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동문들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Q. 신임회장은 지난 4년간의 동문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총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점이 필요하시

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영덕 전임 동문회장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동문회는 어느 때보다 학교와 총동문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동문들의 참여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총동문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정적인 총동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활동을 더욱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사들의 약 20%정도가 총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80% 이상의 이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동문회는 동기부여와 재미있고 활기찬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총동문회보가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는데요, 동문회보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동문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3천부정도 발행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이는 전체 동문의 7~8% 정도만 발송되고 있는데요, 최소 30% 이상의 동문들이 동문회보를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은 물론 과동문회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실어야 합니다. 앞으로 총동문회는 많은 동문들이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Q. 지역과 모교발전을 위해 총동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총동문회가 학교발전기금과 의과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발전기금과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총동문회 이사들의 솔선수범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학교와 총동문회,목포시, 전라남도가 함께 협력해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화 전략속에서 학교와 총동문회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하(무역79) 신임 동문회장

프로필

- 목포고 28회졸업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입학(1979)
- 단국대 대학원 졸업(1985)
- 목포대 대학원 박사졸업(2009)
- 현재 KB국민은행 용당동지점 부지점장

Q.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새해를 맞이하는 동문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동문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흥의 기상과 정기를 받아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문회의 발전이 자신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총동문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이제 목포대학교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우리 동문들이 “로블리스 오블리제”의 의식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장학재단 사업등 동문회활동에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苛政猛於虎

목포시의원 여인두 (행정89)



고사성어중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가혹한 정치가 백성에게 주는 피해를 뜻한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 일행이 태산(泰山) 근처를 지나는데, 한 여인이 "옛날에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어 가셨는데, 이번에는 남편과 자식이 모두 물어 죽었다."면서 울고 있었다. 공자가 그 무서운 곳을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곳은 그래도 가혹한 세금에 시달릴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탄식한

데서 유래된 이 고사성어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야 하는지는 잘 표현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임진년, 60년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를 맞아 다양한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그중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는 위에서 언급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하는 세상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 4년간 우리국민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치를 혹독히 경험했다. 용산참사, 명박산성, 광우병쇠고기 파동, 4대강, 강정마을, 디도스, 민생파탄, 물가고, 청년실업,

남북관계파탄, 한미 FTA, 인천공항에 이은 KTX 민영화, 날로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서 벌어지는 온갖 게이트들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국민들의 심정은 춘추전국시대의 저 여인과 같이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봉건영주나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이 탐관오리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궈야 했던 무지마한 시대가 아니라 SNS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작은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시대다. 비록 역사의 질곡에 빠지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일어서는 에너지 또한 충만한 시대인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게 되었다. 지난해 서울시장선거에서 보여주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2012년에 맞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여인의 울음소리와 공자의 탄식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개최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주제



목포대학교는 지난 12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의료인력 양성의 사각지대인 전남의 의료실태를 전 국민에

게 알리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남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실장의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목포대 우제창 교무처장의 ‘목포대학교 의과대

학 설립의 당위성 및 추진방향’, 아주대 이종찬 교수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적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와 전남발전연구원 이견철 실장의 사회로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조정희 원장, 전남대학교 재활의학과 이삼규 교수,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전남지역의 의료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목포대학교는 1990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2007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 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한 바 있다.

고석규 총장, 지역중심국립대 총장협의회장으로 선임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이 전국 18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협의체인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고 총장은 지난 1월 11일 있었던 회장 선임 인사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받들어 지역 국립대학이 각 지역민들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회원 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부와 대학 간 원활한 업무추진에도 교량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회원 대학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월부터 1년간이다.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목포대 농구부 장동영 선수, 농구대잔치 1경기 최다득점 신기록



목포대학교 농구부 장동영(체육학과 4)이 역대 농구대잔치 한 경기 최다득점(67점)을 기록했다.

목포대의 공격형 가드 장동영은 지난 12월 19일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열린 KB금융그룹 2011 농구대잔치 남자2부 가천대와의 경기에서 3점슛 8개를 포함해 무려 67점을 퍼부었다.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5개, 가로채기 5개 등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팀의 112-58 대승을 이끌었다.

장동영의 득점은 1987년 12월 전설의 슈터인 이종희(당시 현대전자)가 명지대를 상대로 작성한 역대 농구대잔치 한 경기 최다득점(64점)을 24년 만에 넘어선 신기록이다.

장동영 선수는 내년 1월 예정인 2012 프로농구 국내선수 신인드래프트를 신청한 상태이며, 목포대 출신으로 프로 신화를 이뤄낸 박상률(안양KGC)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학대학 신입생 경쟁률 9:1

목포대학교는 지난 12월 6일 2012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정원 36명에 총 324명이 지원해 9: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전형별 경쟁률에서 가군은 특별전형으로 13명 모집에 61명이 지원해 4.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나군은 일반전형으로 23명 모집에 263명으로 11.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약학대학은 지난 12월30일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였으며, 가군은 1월 5일, 나군은 1월 12일 심층면접을 거쳐 오는 1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문기고



웃음상품산업 박사 이기식 (체육91)

2012년 임진년 용의 해 웃어야 성공한다 ^^ ~ ~

잡을 수는 없다. 다만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웃음은 필수 요소이다.

웰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라틴 박사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더 높게 흡수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변화를 주었다. 바로 웃음과 감사는 행복하게 만드는 묘약이 들어 있는 게 분명하다. 기업이 힘들어지고, 학교폭력이 발생되며, 우울함이 발생되어 우울증이 생겨 우리의 소중한 삶에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요즘의 화두가 소통이다. 서로 간에 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음의 합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음의 소통은 모두가 마음을 진정으로 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웃음은 화합의 마음소통을 촉진한다. 간절하게 웃었을 때 내 자신이 행복해지며, 웃음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모두가 웃을 수 있다.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소통하기를 기원한다.

모두들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들을 쉽게 한다. 시대는 흘렀고, 세상은 달라졌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자 통신기가 달라졌고, 도시가 디자인되며,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사람들의 환경이 달라졌다.

아날로그, 디지털, 스마트로 변화하는 우리의 통신문화는 집안 가족들에게도 변화를 준다.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SNS개인주의로 변하고 남편이 아내에

게 문자로 보내서 의사표현을 하고 자녀들이 아빠한테 문자하여 용돈을 주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우리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통신기기를 보고 감정의 표현을 하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다.

필자는 웃음특강 강의를 할 때 시대가 흘러 세상이 변했다는 공감을 웃음 버전으로 이야기 하였다. 옛날 우리는 개미와 베짚이의 이야기 속에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베짚이의 교훈을 잘 알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개미와 베짚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부지런하게 일했던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걸려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세상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을 때 게을렀던 베짚이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개미는 친구들을 모아 베짚이에게 감흥을 부탁했지만 베짚이는 티키팅 해서 오라고 튕겼으며, 번 수입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 많은 경관들을 사진에 담아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 더욱 자신을 마케팅 하여 큰돈을 벌었다는 풍자를 담아 웃음을 유도하는 강의를 했다.

바로 변한 세상이 말해주는 이성과 감성에서 나오는 창조적 의미를 말한다.

2012년 올해는 따뜻한 웃음에서 나오는 감성이 동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대하며,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크게 웃어보자. 동문 웃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웃어야 성공한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2012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월의 진리는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한다.

바로 그런 2012년도 여지없이 와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아 소원을 빌며 지그시 눈을 감는다. 바로 간절함을 내색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 자신의 소원보다 대부분 타인을 생각하는 타인소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족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자기의 회사를 위해, 부모 형제 건강을 비는 모습들... 바로 우리는 내 자신보다 가족들과 남들을 생각하는 우리와 함께 라는 구성원의 화합에 익숙하지 모른다.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매일 터지는 News는 여전히 사건사고로 우리들을 아프게 한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의 자살로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킨 어딘가 모르는 제도권속의 문제점들이 학교폭력에 장애물로 나타났을 것이며, 정치권의 한계와 정치적 패러다임은 대중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지 못한다면 여전히 4년 임기에 화이트 칼라맨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총동문회 12월 이사회

차기 회장으로 유진하(무역/79)부회장 추천

총동문회는 지난 12월 7일 12월 이사회를 열어, 총동문회 차기 회장으로 유진하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장학금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모교 후배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수혜자를 10명으로 결정하여,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전달식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정봉 고문을 준비 위원장으로 하고, 나훈진, 김종국, 천병식 부회장, 박문옥 조직국장, 이현승 사무 부처장을 준비위원으로 하 선임했다.

연합동문회, 모교 발전기금 기부



목포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학교 연합동문회 박남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또한 1천만원을 기탁했는데, 박남영 회장은 후학들을 위해 기부금을 유용하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목포대 의과 대학을 유지해 줄 것을 염원하였다.

재경동문 송년회

재경동문회는 지난 12월 28일 명동 로얄 호텔에서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행사는 100여 명의 재경 동문들과 총동문회 유진하 신임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하였으며, 모교에서 고석규 총장을 대신하여 이광복 기획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미화(국문86), 명재식(상교82) 동문이 목포대학교 총장님 공로패를 문광성(물리82), 이재정(경제82) 재경동문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동문회 합동 등반대회 개최

지난 11월 26일 충남 가야산에서 총동문회 합동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등반대회는 총동문회와 재경동문회가 합동으로 준비하였으며, 2011년 송년의 의미도 더했다. 이날 산행에는 정영덕 총동문회장, 홍성돈 재경동문회 사무총장 등 40여 명의 동문들이 함께 했다.



2011년도 정기감사 실시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정기감사가 지난 1월 6일 동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는 정경주, 최치영, 백동규 감사가 참석했으며, 피감인으로 정영덕 총동문회장과 이행기 수석부회장, 김영호 사무처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정경주 감사는 “동문회 업무 및 회계 감사 결과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회계 및 운영비, 기금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동문회의 자산증가와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 되어 동문회의 위상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태영열사 제24주기 추도식 개최

박태영열사 추모사업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서 “박태영열사 제24주기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유가협 소속 어르신과 졸업생 및 재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추도식에 참석한 내외빈 인사 소개와 더불어 2012학년도 목포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연대사, 목포대신문사 수습기자의 편지글 낭독, 추모 노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김영호 총동문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불우이웃과 함께한 무안동문회 송년회

무안동문회(회장 박진우)는 지난 12월 26일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송년회는 일로 어린이 복지시설인 소전원과 운남 노인복지

시설인 참빛 요양원을 방문하여 성금 50만원씩을 각각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진우 무안지역 동문회장은 “앞으로도 무안지역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2011년 12월 이후)

신임회장 : 유진하 (무역/79) 5,000,000원

감사 : 정경주 (생물/82) 100,000원

최치영 (금보/89) 100,000원

이사 : 박문옥 (정외/94) 100,000원

이창훈 (행정/82) 300,000원

조성문 (사학/99) 100,000원

동문회 발전기금 김관훈(인류/97) 160,000원

총 : 7명 계 : 5,860,000원

이사회비납부계좌 안내 : 국민은행 568301-04-026077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기금 납부안내

국민은행 796201-01-192932

예금주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목포대동문회보 19호 (2012년 0월) 발간안내

목포대학교총동문회에서는 동문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년4회(1회 10,000부) 동문회보를 발간합니다. 동문회보는 동문의 일상사(훈인,승진,개업,이전,수상,출판,전시 등)와 학과,지역,직장,동아리,학회별 모임의 행사소식, 모교의 행사소식, 총동문회 주요사업을 실어 크고 작은 애깃거리로 풍성하게 구성하여 동문 여러분들께 알찬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동문회보에 게재하고 싶은 소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취재해 게재 하겠습니다.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동문회보, 더 나아가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4만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과대학의 꿈을 키웁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 전남,
국립목포대학교가 꿈을 키웁니다.



국립목포대학교
<http://www.mokpo.ac.kr>